

더 건강한 내일 위한 동행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내 부모를 모신다는 생각으로, 환자와 의료진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 가겠습니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은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려고 하면 의료 기술력은 물론, 어떤 대우를 받는 지 고민이 된다”며 “동행재활요양병원의 의료진은 모든 환우가 제 부모라는 생각으로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류 대표원장이 동행재활요양병원을 개원한 이유도 부모님을 모실 병원을 고르는데 있어 막대한 시민들이 많고, 의료인을 불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도.

“다른 지역에는 탄탄한 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의 재활요양병원이 상당수 있지만, 광주 전남지역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의료설비와 재활치료시설 등 전반적인 의료설

류기준 동행재활요양병원 대표원장

의료진들 ‘내 부모 모신다’ 일념으로 치료
환자 빠른 일상 복귀·지역 사회 공헌 목표

비는 물론, 젊고 능력을 갖춘 의료진을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류 대표원장이 시내 외곽에 주로 설립되는 다른 요양병원과 달리 광주 도심 한 가운데 병원을 마련한 것도 환우는 물론 환우 가족들을 생각해서다.

“외곽에 있으면 입원해 계신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기 힘들겠소. 출근 하는 길에, 퇴근 하는 길에, 때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부모님과 자식이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했어요. 저 역시 자식의 입장에서 서 우리 부모를 모셔도 될 병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류 대표원장이 병원을 개업함에 있어 얼마나 꼼꼼함을 기렸는 지

는 병원을 찾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병상간 간격도 현행법 기준보다 더 넓게 배치해 환자들이 보다 여유롭고 편하게 지낼 수도록 했다. 또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치매를 앓는 고령의 환자들이 병상에만 누워있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누구보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무엇보다 류 원장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병원은 계속 입원해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고 재활을 도와 하루라도 빨리 가정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류 대표원장은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있는 사회적입원이 사회적문제가 되곤 한다며 환자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라 진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기준 대표원장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역과 함께 하루하루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며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진정한 동행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역민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환우가 전문의 도움을 받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왼쪽부터).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물품 기탁식에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라면을 기부했다(위). 아름다운 가게 광주지역점에 물품 전달식에 참여한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들. 뇌졸중을 겪은 후에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동행재활요양병원 환우.

엄마, 아버지는 이따금씩 한 평생을 가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온 고령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어느새 허리는 굽어 있고, 손과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이 가득하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이상, 그 삶의 무게를 감히 헤아리기란 어려운 일이다. 과거처럼 3대(代) 이상이 모여 부모 혹은 조부모를 모시는 일은 찾아보고 어렵다. 그만큼,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내 부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내 부모를 맡기는 만큼,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의료기술은 물론,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픈 부모를 둔 모든 자녀의 마음일 것이다.

광주 동행재활요양병원(대표원장 류기준)은 이 같은 고민을 가진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모셔도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지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이자 한 길을 걷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양·한방 협진 시너지=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지난 2019년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인근에 개원한 뒤 올해 5주년을 맞이한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치고 있다. 우선 한의사(김도연 원장)를 새로 영입하면서 전문 의료진을 더 강화했다.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과 한의학 박사 최태진 병원장, 김도연 원장(한의학)을 비롯해 재활의학과전문의 김정민 원장과 외과전문의 박철홍 원장 등 전문 의료진이 함께 한다.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의학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 완

한방·재활의학·외과·내과 등 양한방 협진
체질 분석해 통증 완화·기력 회복 맞춤 치료

첨단의료장비로 체계적인 재활 도와
VIP 병동 운영...전문 간병인 24시간 돌봄

어르신 생신 잔치·이미용 등 봉사활동
현형·배식 봉사 등 사회와 ‘아름다운 동행’

화와 면역력 회복, 기력 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을 분석하고, 이후 침·약침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탕약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거듭 성장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로,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물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도 운영된다.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세탁장, 휴게·면회 공간 등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광주 도심이 휘하 내려다보이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다.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상 등 매트 운동부터 워킹벨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에게는 도수치료, 복합

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치료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보행훈련,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 재활치료,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언어재활치료, CPM(수동관절운동기구), 신장분사, ESWT(체외충격파), 도수치료(수술 후·중추), 견인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극초단파치료 등 15종에 달한다.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동행재활요양병원의 진짜 가치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시스템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다. 환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행복을 함께하려는 ‘동행’의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봉어빵 굽는 데이’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 잔치’와 ‘이미용 하는 날’, ‘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를 열며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혈액 수급이 어려워질때면 전 임직원들은 발 벗고 나서 혈액 나눔에 동참한다. 또 남구 서동 ‘사랑의 식당’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 제공 및 배식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연말을 맞아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물품 기탁식’을 열고 700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라면을 북구 자원 관리팀에 전달했다.

광주시 북구에서 주관하는 ‘2022년 일상회복지원사업’과 관련돼 진행되는 ‘건강마음돌봄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지역 어르신과 취약 계층을 위한 한의과 이동진료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북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추운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및 겨울이불을 북구 중흥동 소재 지역주민에게 후원했으며, 이날 임직원과 봉사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